

AI가 흔드는 글로벌 금융질서… 성장 기회 속 불안정성 경고

재경부·KDI, G20 금융안정 회의
세계 석학들 AI 확산 양면성 진단
AI 거래 증가에 시장 변동성 우려
공급망 재편·중앙은행 통제력 약화
금융위험 대응 위한 국제 공조 촉구

인공지능(AI)의 활용 확대와 공급망 변화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석학들은 AI를 비롯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성장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재정경제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6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허장 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층적인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외해성 기술)’의 확산은 성장의 기회이자 불확실성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AI 사용은 의사결정 동조화와 보안 위협을 증대하고 있으며, 가격 조정이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커스 브루노마이어 프린스턴 대학교 벤드하임 금융센터 소장은 AI트레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더의 시장 진입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AI의 처리속도와 업무 효율성이 인간의 처리력을 앞지를 것이며, AI의 비대칭적 이해력과 설명 불가능성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시장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트레이더들은 인간보다 시장 이해도가 높지만, 우리는 AI트레이더의 사고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기존 시장 거래자들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매매의 근거로 활용했지만, 기존의 정보들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돼가고 있다. 이해의 감소는 유동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가격 변동성의 확대와 리스크 노출액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앙은행들은 시장 참여자들보다 광범위한 인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정책을 결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AI에이전트는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AI가 중앙은행을 이기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AI는 우리보다 시장을 훨씬 쉽게 이해한다. 시장 취약성은 확대하고, 기

존 전략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AI 간의 담합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규칙이 필요하다. 시장 규칙이 복잡할수록 AI가 인간에 대한 이점을 갖기 쉽다. 세밀하지 않고 단순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우라 알파로 미주개발은행(I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생산·판매가 세계 각국으로 분절화하는 공급망의 재편 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본사와 생산, 판매가 각각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들은 효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들은 원가, 관세, 유통, 생산성 등을 고려해 끊임없이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처를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발생하면 무역의 형태나 비중도 빠르게 바뀐다. 과거 미국의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9%까지 감소했다”라며 “극적인 변화에도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만큼 전체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변화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확실성 국면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자본력이 탄탄한 은행들은 변화를 지원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자금을 제공했고, 기업들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에 성공했다”라며 “은행 대출과 시장 지식은 기업의 공급업체 발굴 및 광범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시대의 금융안정 혁신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위협과 충격을 금융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中 하이얼, 태국 세탁기 공장 착공 LG·삼성과 해외시장 ‘경쟁 예고’

하이얼, LG 생산거점 라용에 진출
연산 300만대·최대 70% 수출 계획

LG전자, 중동·호주 수출시장 겹쳐
삼성전자, 춘부리에 생산기지 운영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LG전자의 주요 해외 가전 생산거점인 태국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 건설에 착수하면서 중동과 호주 등 수출시장에서 한·중 업체 간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얼은 전날 태국 라용(Rayong) WHA ESIE 5 산업단지에서 세탁기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신공장은 하이얼의 최대 해외 세탁기 스마트공장으로서, 전체 계획 생산능력은 연간 300만대다.

하이얼은 우선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해 연간 100만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탁통 3개를 결합해 의류를 종류별로 분리 세탁할 수 있는 ‘멀티워시(MultiWash)’와 ‘X시리즈’ 등 고급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신공장 생산능력의 60~70%는 수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수출 대상은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동 등으로, 이 가운데 중동과 호주는 LG전자가 태국 생산거점을 통해 가전을 공급하는 시장과 겹친다.

특히 LG전자는 하이얼 신공장이 들어서는 라용 지역에서 대규모 가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태국법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용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과 중동,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해외시장에 수출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590만대를 웃돌며 LG전자의 글로벌 생산거점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도 태국 춘부리(Chonburi)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해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태국 투자청(BOI)이 올해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전체 가전 생산능력은 연간 1500만대 규모로, 생산 제품을 세계 137개국에 수출한다.

양사는 태국 내수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가정용 세탁가전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브랜드 점유율은 각각 24%, 20%로 집계됐다.

중동에서도 한국 업체들과 하이얼은 세탁가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가정용 세탁가전 시장에서 LG전자 사우디법인의 판매량 점유율은 26%를 차지했다. 하이얼 제품을 취급하는 알자브르트 레이팅은 12%, 삼성전자와 애드미럴 제품을 취급하는 유니이티드 마트볼리그룹은 18%를 차지했다.

다만 해당 점유율은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포함한 가정용 세탁가전 전체 시장 기준이다. 하이얼의 태국 신공장은 착공 단계로, 향후 중동 시장에 공급할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나무꾼의 투자에 날개를 달아 줄

선녀금 혜택

신규·휴면 최대 24개월간
국내주식 수수료 0원

이벤트 기간: ~12/31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국내주식(ETF포함) 매매 시 수수료 온라인 0.01%~0.50%, 오프라인 0.40%~0.50%(KRX, NKT 포함)이며, 홈페이지 등 참고 ※ 당사가 부담하는 유관비용은 재산상이익 제공에 해당됩니다.(동일인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는 연간 최대 2억원)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4352호(2026-09-23~2027-09-22)